

다윗 이야기

⑭ 다윗과 밋세바

나 레 이 셴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다윗왕은 군대의 사령관 요압과 이스라엘 군인들을 전쟁터로 출전시켰습니다. 이스라엘 군인들은 힘겹게 적들과 싸우고 있었지만 다윗왕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저녁, 다윗왕은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.

다 윳 (혼잣말로) 아니! 저 여인이 누구기에 저토록 아름답단 말인가... 이보게, 혹시 자네는 저 파란지붕의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?

내 시 예, 저 파란지붕이라 하면 지금 전장에 나간 우리야 장군의 아내, 밋세바라고 합니다.

다 윳 음.. 그렇군.. 이봐라 너는 조용히 오늘밤 저 여인을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. 단,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행해야 한다.

내 시 아.. 예... 분부대로 하겠습니다.

나 레 이 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밋세바는 그렇게 다윗왕에게 오게 되었고 다윗왕은 밋세바의 아름다움에 반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만 그녀와 동침하였습니다.

나 레 이 셴 다윗왕이 밋세바를 범한 뒤 밋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다윗왕에게 전했습니다.

다 윳 뭐라? 밋세바가 임신을 했다고? 아니... 이러면 안 되는데.. 이 일이 들통나게 생겼구나..

나 레 이 셴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윗왕은 매우 괴로워합니다.

다 윳 안 돼! 죄가 들통 나면 안 돼! 죄를 감춰야해! 숨겨야 한다구!

나 레 이 셴 자신의 죄를 숨기면서 동시에 밋세바를 뺏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한 다윗왕은 점점 나쁜 마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.

다 윳 그래, 전쟁에 나가 있는 밋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이 전쟁에서 죽게 되면 밋세바를 내 아내로 만들 수 있겠지?

흐흐 그러면 죄도 숨겨지고 밋세바도 얻고, 그래 이거야... 훗

나 레 이 셴 그래서 다윗왕은, 밋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도록 명령하였습니다.





다윗 (전령에게 귓속말로) 이보게 조용히 우리야 장군을... 속닥속닥...
가장 위험한... 속닥속닥... 죽여버려... 속닥속닥...

나 레 이 션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야 장군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적들과
싸우던 중 죽게 됩니다.

.....

나 레 이 션 우리야 장군이 죽은 뒤 다윗은 밋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
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. 다윗은 우리야 장군이 죽었지만 그래도
자신의 죄가 밝혀지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.
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이 악행에 매우 분노하셨습니다.
다윗의 계획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습니다.